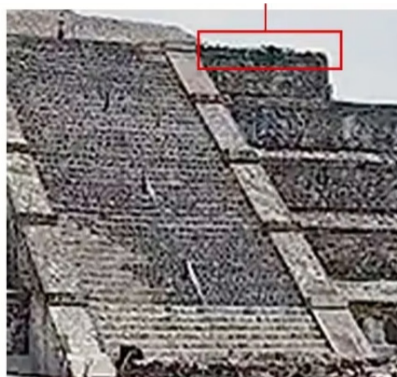




피라미드 유적지 총격, 관광대국 이미지 큰 타격

멕시코시티 인근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 테오티우아칸 유적지 내 '달의 피라미드(Pyramid of the Moon)' 정상에서 한 남성이 관광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은 최소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멕시코 관광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멕시코의 대표 관광지인 Teotihuacan 유적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외국인으로 알려지자 멕시코 정부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사건은 유적지 관람객이 많은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범인은 배낭에 탄약과 흥기를 소지한 채 달의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가 약 20~30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군에 의해 제압당했다. 사건의 동기를 두고 일부 현지 매체는 범인이 평소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동경을 드러냈으며, 사건 당일이 콜롬비아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27주년이자 히틀러의 생일이라는 점에 이를 모방한 범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사건의 동기와 배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클라우디아 셰인

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사건 직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내각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유적지에는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이 긴급 배치되었으며 경찰 병력을 주요 관광지, 공항, 고고학 유적지에 추가 배치하고 전국 관광보안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치안 개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Claudia

Sheinbaum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멕시코는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반복되는 강력사건이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가 덮친 셈이다. 전문가들은 관광지 경비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조직 단속, 지방 치안 역량 강화, 관광객 보호 시스템 정비가 병행돼야 국제 관광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멕시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멕시코 휴대전화 등록 6월30일까지, 미등록 시 '강제 해지'

멕시코 정부가 고질적인 강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국 휴대전화 사용자 등록제'의 최종 마감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회선은 예외 없이 서비스가 차단될 예정이나, 여전히 등록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범죄 예방 목적의 전국 전화번호부 등록이 6월 30일 종료된다. 당국은 "기한 연장은 없다" 못박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멕시코 내 모든 선불 및 후불 휴대전

화 사용자는 본인의 신원 정보(CURP 및 신분증)를 해당 통신사에 등록해야 한다. 마감일인 6월 30일 자정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은 번호는 7월 1일부터 즉시 발신과 수신에 정지되며, 일정 기간 후에 후 회선 자체가 강제 해지된다. 등록률 20%대 머물러...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록 현황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내 활성 회선 중 등록을 마친 비율은 약 20~25% 내외

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과거 유사한 제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폐지됐던 선례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국가가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오히려 범죄 조직에 유출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이번 제도를 강행하는 핵심 목적은 범죄 악용 차단이다. 익명성 제거: 익명의 선불폰

(Prepago)을 이용한 전화 갈취(Extortion)와 유괴 협박 범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효율성: 범죄 발생 시 해당 번호의 실소유주를 즉각 파악하여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Telcel, AT&T 등 주요 통신사들은 마감 임박 시 사용자가 몰려 전산 장애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각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인근 대리점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 2026 법정 공휴일 |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
|---------------------|--|
| 1월 01일 신년 | 9월 16일 독립기념일 |
| 2월 05일 헌법의 날 | 11월 02일 망자의 날* |
|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 11월 20일 혁명기념일 |
| 4월 02일~03일 부활절* |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
| 5월 01일 노동절 | 12월 25일 성탄절 |
| 5월 0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 일부 휴일은 월요일로 변경 |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 | | |
|-------------------------------|-------|-------------|-------|
| 멕시코 페소 / USD | | 한국 원화 / USD | |
| 살 때 | 16.07 | 살 때 | 1,480 |
| 팔 때 | 17.10 | 팔 때 | 1,430 |

|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 |
|----------------|-----------------|
| 번호판 | 끝자리 검사 기간 |
| 1, 2번 | 04-05월 / 10-11월 |
| 3, 4번 | 03-04월 / 09-10월 |
| 5, 6번 | 01-02월 / 07-08월 |
| 7, 8번 | 02-03월 / 08-09월 |
| 9, 0번 | 05-06월 / 11-12월 |

멕시코 週40시간 근무제 본격 추진...노동시장 대전환 시동

멕시코 정부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형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 정부와 집권여당 모레나(Morena)는 2026년 들어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재가동했으며, 기업과 노동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혁이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 노동시장 구조는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 행사와 공식 브리핑에서 “경제 성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갈 수 있다”며 주 40시간제 도입을 핵심 사회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일괄 시행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는 오랫동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해 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물류, 소매업 등에서는 주 48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며, 비공식 노동 시장에서는 실제 노동시간이 이보다 훨씬 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기대만큼 높지 않아, 노동

시간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수년째 이어져 왔다.

노동계는 과로와 건강 악화, 가족생활 붕괴, 출산율 저하, 교통 체증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이 이유로 주 40시간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 대도시 직장인들은 장시간 근무와 긴 출퇴근 시간이 겹치며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48시간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년간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2027년부터 매년 2시간씩 줄여 2030년 무렵 주 40시간 체제를 완성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점진적 전환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반응은 대체로 찬성 기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크다. 집권여당 모레나는 최저임금 인상, 플랫폼 노동자 보호, 휴식권 확대에 이어 이번 개혁도 “노동 존엄성 회복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인 PAN, PRI, 시민운동당(MC)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면서도, 기업 지원책과 중소기업 보완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기업계와 산업계는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교대근무 재설계와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물류·외식·유통 업계는 인건비 상승과 운영시간 조정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북부 국경지대 수출공단과 자동차 산업단지는 미국 시장 공급망과 연결돼 있어 생산 일정 재조정 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노동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비용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회의·보고 중심의 비효율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동화·디지털 전환을 병행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후 결근률 감소, 이직률 하락, 생산성 개선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멕시코의 변화는 늦은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프랑스는 이미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칠레는 주 40시간제로 전환 중이다. 콜롬비아도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멕시코가 이번 개혁을 완수하면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노동자들의 기대감도 크다. 주 40시간제가 정착되면 주 5일 근무와 주말 2일 휴무가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 건강 개선, 여가 확대, 육아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된다. 특히 장시간 통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근로자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 도입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만 줄이고 업무 방식은 그대로 둘 경우, 실제로는 더 강한 업무 압박과 무급 초과노동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정부의 감독 강화와 기업 문화 개선, 노동자 권리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주 40시간제 논의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멕시코 경제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성과 삶의 질 중심의 선진형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갈림길에서 있기 때문이다.

세인바움 정부는 이를 “역사적 노동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공 여부는 법안 통과보다도, 멕시코 사회 전체가 오래 일하는 문화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산업용 대형창고 임대 및 판매

몬테레이와 살티요에 근접한 위치 소재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최신 시설의 대형창고
 물류 창고에 대한 고민이 해결 됩니다.

최소 4,000 m² (1,200평)
 최대 50,000 m² (15,000평)

사무실: 811-165-6005 / 812-584-9465 이메일: digainmuebles@gmail.com 홈페이지: www.diga-inmuebles.com

멕시코-대만 '경제 밀월' 폭발... AI 서버 공급망의 '핵'으로 부상

멕시코와 대만 사이의 경제적 유대가 단순한 성장을 넘어 '폭발적 서지(Surge)' 단계에 진입했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거대한 흐름 속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만 기업들이 멕시코를 북미 시장 진출의 핵심 기지로 삼아 역사적인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 경제부와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양국 간 총 교역량은 482억 달러(한화 약 66조 원)를 돌파했다. 이는 2024년 기록했던 108억 달러에서 불과 1년 만에 약 346%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수직 상승의 배경에

는 글로벌 IT 제조의 큰손인 폭스콘(Foxconn), 위윈(Wiwynn), 콰타(Quanta) 등이 있다. 특히 폭스콘은 차와와(Chihuahua)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서버 생산 시설을 구축,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공급할 서버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대만 기업들은 할리스코, 누에보레온, 차와와 주를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며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비올레타 수(Violeta Hsu) 주멕시코 대만 대표는 "대만 기업들은 이제 멕시코를 단순한 조립 기지

가 아닌,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보고 있다"며 양국 협력의 질적 변화를 강조했다.

[데이터로 보는 멕시코-대만 vs 멕시코-중국 교역 현황]

1. 멕시코-대만 (Taiwan)
수교 및 관계: 1972년 단교 이후 비공식 경제·문화 관계 유지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교역 규모 추이
2024년: 108억 달러
2025년: 482억 달러 (급증)

주요 품목
수입: 반도체, AI 서버용 기관, 광케이블, 모뎀
수출: 자동차 부품, 동(銅) 광석, 농산물

2. 멕시코-중국 (China)

수교 및 관계: 1972년 공식 수교
교역 규모: 연간 약 1,400억 달러 규모 (멕시코의 2대 교역국)

주요 품목
수입: 스마트폰, 통신 기기, 자동차 부품

수출: 구리, 고철, 차량용 부품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기업들이 USMCA(미·메·카 협정)의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시티(CDMX)와 북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대만 기술 인력의 유입이 늘어나며 부동산, 물류,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들 영국 대사관 장기 체류 특혜 논란으로 차기 대선행보 타격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가 자신의 아들이 과거 영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 관저에서 약 6개월간 머물렀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정가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에브라르드는 그러나 공적 자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일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논란의 중심은 그의 아들 마르셀로 패트릭 에브라르드 라모스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학업을

위해 런던에 체류하던 당시 대사관 관저에 머문 것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해당 기간 동안 숙소 제공 뿐 아니라 일부 공관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외교 공관이 고위 공직자 가족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브라르드는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서 당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들의 안전을 우려했고, 주영 멕시코 대사가

임시 거처 제공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며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사관 관저는 국가 자산인 만큼 장관 자녀의 장기 체류가 허용된 경위, 공식 승인 절차, 관리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 정부가

특권 정치 청산과 공직 윤리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사안은 여권 내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에브라르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와 행정 경험을 갖춘 유력 인물이지만, 공직자 가족 특혜 문제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도덕성 검증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운전면허

이제 필수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멕시코 이혼 증가세 뚜렷... "법적 이혼보다 별거가 더 많다"

멕시코에서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문화와 가족 중심 가치관이 강한 나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도시화와 여성 경제활동 확대, 사실혼 증가, 무과실 이혼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혼인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NEGI(멕시코 국립통계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의 연간 이혼 건수는 약 15만~17만 건 수준으로 집계된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약 50만~60만 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혼인 100건당 약 30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수치가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에서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따로 사는 '별거 부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절차 비용 부담, 자녀 양육 문제, 재산 분쟁 회피, 종교적 이유 등으로 혼인 관계만 유지한 채 사실상 결별 상태로 지내는 사례가 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지방도시, 그리고 법적 이혼 대신 동거 형태로 함께 사는 사실혼(unión libre) 문화가 강한 지역에서는 관계 종료



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회학자들은 법적 이혼, 장기 별거, 사실혼 해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계 해체 비율은 40~50%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혼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 문제다.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 실업, 불규칙한 소득, 부채 문제 등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멕시코의 식료품 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 확대는 가정 내 스트레스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외도와 신뢰 붕괴다. 휴대전화와 SNS 사용이 늘면서 불륜, 거짓말, 질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변호사들은

“예전에는 숨겨졌던 문제가 이제는 디지털 기록으로 쉽게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가정폭력과 통제적 관계 역시 중요한 이혼 사유로 꼽힌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언어폭력, 경제적 통제, 신체적 폭력 등을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이를 “이혼 증가가 아니라 권리 회복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멕시코 특유의 대가족 문화도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부모나 친척의 지나친 개입, 시댁·처가와 의 동거 문제, 자녀 양육 방식 차이 등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이혼 증가의 배경에는 법제도 변화도 있다. 멕시코 여러 주

에서는 한쪽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무과실 이혼(divorcio incausado)이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쉽게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함께 살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해졌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결혼 자체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재혼과 재결합, 공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혼율보다 실제 관계 형태의 변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더 이상 “이혼이 드문 보수적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오히려 전통 가족제도와 현대적 개인주의가 동시에 충돌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이혼 증가는 단순한 가족 해체 현상이 아니라, 경제 현실과 사회 변화, 여성의 권리 확대, 결혼 제도의 재정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연예인 양육권 분쟁이 법안으로...멕시코 '카수(Cazzu) 법' 추진

아르헨티나 출신 가수 Cazzu의 양육권 분쟁이 멕시코 의회 입법 논의로 번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른바 ‘카수 법(Ley Cazzu)’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부모가 해외여행 동의권을 이용해 아이의 출국을 막는 사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혼·별거 후 한쪽 부모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여권 발급, 해외여행 동의서, 출국 허가 등을 거부해 자녀와 주양육



자의 이동 자유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멕시코에서는 미성년자가 해외로 이동할 경우 양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반복돼 왔다.

이번 논의는 Cazzu와 멕시코 가수 Christian Nodal의 공개적인 양육권 갈등이 대중적 관심을 끌면서 급물살을 탔다. 일부 의원들은 “아이를 보지 않는 부모가 행

정권만 행사해 아이의 삶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양육 참여도, 양육비 지급 여부, 자녀 복리 등을 고려해 한쪽 부모 동의 없이도 여행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유명한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일반 가정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험한데도 사람은 왜 몰리나...게레로 여행의 진실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대표 관광지 게레로(Guerrero)는 지금도 외국 정부의 강한 여행경보 대상이다.

미국 국무부는 게레로주 전체에 대해 “여행 금지(Level 4)”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카풀코·익스타파·시우아타네호·탁스코 같은 대표 관광지도 예외로 두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게레로 대부분 지역에 대해 “필수적이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캐나다 정부도 주 전역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면서도 익스타파/시우아타네호는 항공편 이용 시 예외적으로 비필수 여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게레로는 전부 같은 위험도”라는 식의 단순한 판단도 틀리고, 반대로 “관광지는 전부 안전하다”는 말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관광객은 계속 간다. 이것이 게레로의 역설이다.

최근 현지 관광당국과 호텔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아카풀코, 익스타파-시우아타네호, 탁스코는 성수기마다 높은 객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6년 부활절 연휴 기간 탁스코는 100%, 아카풀코는 특정 주말에 94.6%, 익스타파는 연휴 초반 78.9% 수준까지 올라갔고, 게레로 전체 평균도 60~70%대를 유지했다.

2025년 말에도 아카풀코·익스타파-시우아타네호·탁스코의 점유율은 90% 안팎까지 올라간 바 있다. 관광 수요가 실제로 살아 있다는 뜻이다.

게레로가 계속 선택되는 첫 번째 이유는 상품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아카풀코는 멕시코 국내 관광의 상징 같은 도시이고, 익스타파-시우아타네호는 비교적 정돈된 리조트형 해변 휴양지이며, 탁스코는 식민도시 풍경과 은(銀)공예, 종교 행사로 유명하다.

특히 멕시코 국내 여행객 입장에서 칸쿤보다 가깝고, 도로·항



▲ 갱단이 지역을 장악한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게레로 주다. 역설적이게도 갱단의 장악력이 견고할수록 해당 지역의 치안이 더 안전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실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의 무능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케하고 있다.

공 접근성이 익숙하며, 장기 휴가가 아니라 주말·연휴형 소비에 적합하다. 위험을 알고도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지역마다 다르고 관광 동선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는 경우가 많다. 이 판단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광지의 ‘섬처럼 분리된 안전’이다.

게레로의 치안은 주 전체가 균일하지 않다. 외곽 산간지대, 내륙 교통로, 일부 지방도시는 카르텔·지역 무장조직·자경단 성격의 무장세력이 뒤엉켜 장악력을 행사하는 반면, 해변 리조트축과 주요 관광대로는 군·주경찰·국가방위대가 집중 배치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실제로 게레로 주정부는 2025년 겨울 관광작전 때 6,800명 이상, 순찰차 727대를 관광 회랑과 해변·고속도로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고, 2026년 부활절 연휴에도 관광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관광객이 체감하는 안전과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 “보이는 안전”이 주 전체의 실제 치안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국무부는 게레로에 대해 범

동을 이유로 자국 공무원의 주내 이동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아카풀코 중심부와 칠판싱고 등지에서 조직범죄가 활발하며, 총격과 처형식 살인이 관광 구역 안팎에서 발생했다고 경고한다.

특히 야간 육로 이동과 농촌·내륙 접근은 위험하다고 명시한다. 다시 말해 “낮에 호텔-해변-식당-공항”만 오가는 짧은 체류는 상대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만, 그 바깥으로 벗어날수록 위험은 급격히 커진다.

게레로가 왜 이렇게까지 위험지대로 남아 있는지는 범죄 지형의 복잡성과 관련이 깊다.

이 주는 오래전부터 태평양 항로, 산악지대 생산지, 항구, 관광도시, 내륙 물류축이 겹치는 곳이었다. 국제위기그룹(Crisis Group)은 이미 게레로를 여러 범죄조직, 지역 무장세력, 자경단이 뒤얽힌 전형적인 분절형 전쟁터로 분석한 바 있다.

최근에도 북부 게레로와 탁스코 일대에서 라 파밀리아 미초아카나(La Familia Michoacana)의 존재가 거론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로스 아르디요스(Los Ardillos), 로스 틀라코스(Los Tlacos) 등 지역 기반 무장세력이 영향력을 다투는 상황이 반복 보고된다.

즉, 게레로의 위험은 한 개의 ‘초대형 카르텔’이 단일 지배하는 구조라기보다, 여러 세력이 지역별로 조각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에 가깝다. 그래서 특정 관광지 안은 조용해 보여도, 몇 시간 거리의 다른 구역은 전혀 다른 현실일 수 있다. 수치로 봐도 게레로는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Mexico News Daily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게레로는 2023년 약 1,900건에 가까운 살인을 기록했고, 2025년에도 1,312건의 고의살인이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부와 연방 치안당국은 2025년 게레로의 고의살인이 감소세라고 강조하고, 2026년 초에는 아카풀코와 게레로 전체에서 살인 감소 폭을 발표했다.

실제로 멕시코 전체 살인 발생은 2026년 들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감소 추세와 안전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높은 폭력 수준에서 일부 내려왔다고 해도, 외국 관광객이 체감하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아카풀코는 게레로의 모순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오티스(Otis) 허리케인 이후 호텔 객실과 해안 관광 인프라를 복구하며 관광 재개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실제로 2026년 부활절 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과 수십억 페소의 경제효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기본 서비스 부족, 갈취, 실종, 생활기반 붕괴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엘파이스는 최근 아카풀코가 관광객을 위해 빠르게 단장되는 동안 주민들은 물·전기·교육·생계 문제와 범죄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 회복은 사실이지만, 도시 전체의 회복이나 안전 정상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6면에서 계속..

멕시코시티 인근에서 개 1만1천 마리 안락사 파문

멕시코 수도권 외곽 도시에서 수년간 유기견 1만1천 마리가 안락사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동물보호법과 안락사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멕시코시티 북부 에스타도 데 텍사막(Tecamac) 시정부다.

현지 언론과 지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텍사막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962마리의 개를 안락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장은 현재 집권여당 모레나(Morena) 소속 상원의원인 Mariela Gutierrez 이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개된 영상이 SNS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알려졌다. 영상에는 구티에레스 당시 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유기견 처리 문제를 두고 언쟁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량 안락사 사실을 인정했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처리된 개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주민을 공격한 위험 개체였다”며



“모든 절차는 현행 규정과 수의학적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임 기간 동안 5만 건 이상의 중성화 수술과 수천 건의 입양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멕시코 연방법상 동물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질병, 극심한 고통,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지적한다. 건강한 유기견까지 포함해 대량 제거가 이뤄졌다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락사는 지정 약물 사용, 수의사 감독, 기록 보존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1만 마리가 넘는 개체가 실제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Fiscalia General de Justicia del Estado de Mexico 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와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6년형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도 나온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전 시장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는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켰으며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가

유기동물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의 심각한 유기견 현실도 다시 드러냈다. 현지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정부 추산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매년 약 50만~70만 마리의 개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거리 생활견 규모는 최대 2천만 마리 이상으로 평가된다.

최근 10년간 연간 신규 유기견 발생(추정치)은 2016년 55만 마리에서 2020년 62만 마리로, 2025년 70만 마리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기견 증가 원인으로 중성화 부족, 충동 입양 후 파양, 경제난에 따른 사육 포기, 보호소 부족, 반려동물 등록제 미비 등을 꼽고 있다.

이번 텍사막 사건은 단순히 한 지방정부의 행정 논란을 넘어, 멕시코 사회가 유기동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량 안락사 중심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중성화·입양·보호소 확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5면에 이어..

엘파이스는 최근 아카풀코가 관광객을 위해 빠르게 단장되는 동안 주민들은 물·전기·교육·생계 문제와 범죄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 회복은 사실이지만, 도시 전체의 회복이나 안전 정상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그러면 실제로 관광객이 겪는 위험은 무엇인가. 케레로에서 외국인 여행자가 가장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은 전면적 총격전보다도, 도난·강도·갈취·이동 중 우발 상황·불법 검문소·야간 도로 위험이다.

캐나다와 영국 정부는 무장총돌이 예고 없이 벌어질 수 있고,

일부 도로에서는 범죄조직이 비공식 통행료를 요구하는 검문소를 운영한다고 경고한다. 미국은 아예 자국 공무원의 케레로 이동을 금지한다. 반면 시우아타네호·익스타파 같은 곳은 항공으로 바로 들어가 리조트와 검증된 이동수단만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즉, 케레로 여행의 핵심 변수는 “갈 것인가”보다 “어디를, 어떻게,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더 가깝다.

이 때문에 케레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상당수는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라기보다, 위험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본다. 직항 항공편 이용, 공항-호텔 간 사전 예약 차량, 리조트 중심 체

류, 야간 외출 최소화, 외곽지역 미접근, 현지 뉴스 상시 확인 같은 조건을 붙이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판단은 익스타파-시우아타네호처럼 관광업 의존도가 높고 비교적 동선이 짧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카풀코처럼 도시 규모가 크고 사회적 균열이 깊은 곳에서는, 같은 호텔 구역에 묵더라도 거리 하나만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케레로는 괜찮다” 혹은 “케레로는 절대 안 된다”는 흑백 판단보다, 관광 회량은 부분적으로 기능하지만 주전체는 여전히 고위험 지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결론적으로, 케레로는 멕시코

에서 가장 복잡한 여행지 중 하나다. 풍광과 상품성, 접근성, 국내 관광 수요, 강력한 관광 인프라 때문에 방문객은 계속 몰린다. 하지만 그것이 곧 안전의 증거는 아니다. 실제 치안은 관광구역 내부의 집중 경비, 그 바깥의 조직범죄 지배, 지역별로 다른 카르텔·무장세력 구조, 육로와 야간 이동의 높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구조다.

따라서 케레로를 다루는 가장 정직한 문장은 이것이다.

“갈 수는 있지만,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외교당국의 경보가 과장만은 아니며, 동시에 관광이 완전히 마비된 곳도 아니다. 케레로의 진실은 그 사이, 바로 그 불편한 회색지대에 있다.

생필품부터 건설공사까지 장악, "세금 걷는 또 하나의 정부"

멕시코 남부 Guerrero 주 일부 지역에서 범죄조직 La Familia Michoacana 가 단순 마약 밀매를 넘어 생필품 유통, 음료 판매, 건축자재, 공공공사 계약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언론과 치안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 조직은 폭력과 협박을 이용해 지역 경제 전체를 사실상 사유화하며 '그림자 정부' 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은 지역 상점과 도매상들에게 쌀, 콩, 설탕, 식용유 등 기본 식료품, 탄산음료 및 맥주, 담배 및 주류, 가스통, 생수, 얼음 등 기본 생필품의 가격을 강제로 정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특정 공급업체 물건만 팔도록 강요받고, 이를 어길 경우 협박·폭행·납치 위협에 노출된다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슈퍼마켓 가격이 아니라 카

르텔이 정한 가격으로 사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영향력은 건설 분야에서도 광범위하다. 지방정부 발주 공사나 민간 건축 현장에 대해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 블록 등 자재를 조직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상하수도, 학교 보수, 공공주택 공사 등에서 계약업체 선정에 개입하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치안 전문가들은 "이제 카르텔은 마약

보다 지역 예산과 건설시장에 더 관심이 많다"고 분석한다.

지방중에서 특히 Guerrero주가 심한데 오랫동안 멕시코에서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산악지형과 농촌지역이 많아 국가 통제가 약하고, 빈곤율도 높아 범죄조직이 주민 생계와 경제에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Tierra Caliente, Norte de Guerrero, Taxco 주변, Iguala 일대 지역에서 조직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걷는 또 하나의 정부"

현지 주민들은 조직이 사실상 비공식 세금 체계를 운영한다고 말한다.

상점 영업세, 운송 차량 통행세, 건축 허가비, 공사 착수비, 행사 개최비 등으로 이를 내지 않으면 영업 방해나 보복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제 공해야 할 질서와 행정을 범죄조

직이 대신하는 위험한 단계"라고 경고한다.

이같은 치안공백상태가 지속되자 국가 방위군이 게레로 주에 반복 투입되면서 치안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도 자금세탁 추적, 지방정부 계약 감시, 물류 유통망 조사, 조직 지도부 체포 작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체포 후에도 구조는 남는다"는 회의론도 크다.

La Familia Michoacana 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조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경제 질서를 통제하는 준정부 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게레로 주 사례는 멕시코 조직 범죄가 마약에서 시장 지배·행정 장악·지역 통치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치안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 행정 정상화와 경제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선물 뭐 사왔어?"...멕시코에서 찾는 특별한 기념품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 사왔어?" 다. 멕시코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최근 단순한 관광 기념품보다 지역 문화와 장인 정신이 담긴 특색 있는 로컬 기념품을 찾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현지 관광업계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기존의 열쇠고리·냉장고 자석 대신, 집에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거나 선물 가치가 높은 수공예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1.오하카의 알레브리헤스(Alebrijes), 멕시코를 대표하는 환상 동물 목각품

Oaxaca 지역의 대표 공예품은 알레브리헤스(Alebrijes)다. 형형색색으로 채색된 동물·상상속 생물을 나무로 조각한 작품으로, 멕시코 민속예술의 상징으로

꼽힌다. 작은 장식품부터 대형 예술품까지 다양하며, 장인이 직접 만든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다.

2. 탁스코(Taxco) 은세공 제품, 실용성과 투자 가치를 동시에..

Taxco 는 멕시코 최고의 은(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은광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지금도 수많은 공방에서 반지·목걸이·팔찌·식기류를 제작한다. 멕시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고급 기념품 가운데 하나다.

3. 푸에블라 탈라베라(Talavera) 도자기, 집들이 선물로 인기

Puebla 의 Talavera 도자기는 스페인과 멕시코 전통이 결합된 대표 공예품이다. 접시, 컵, 타일, 화분 등이 유명하며, 파란색과 흰색 문양이 특징이다. 최근



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해외 수요도 늘고 있다.

4. 전통 직물과 자수 제품
치아파스·오악사카·유카탄 지역에서는 손으로 짠 직물과 자수 의류가 인기가 높다.

솔(레보소), 테이블 러너, 쿠션 커버, 전통 블라우스(우이필), 수공예 가방 등 각 지역마다 색상과 문양이 달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5.멕시코 식품 선물 세트

멕거리 선물도 꾸준한 인기 품목이다. Mole 소스, 바닐라 원액, 현지 꿀, 장인 초콜릿, 매운 소스 세트, 커피 원두다.

특히 오악사카 몰레와 치아파스 커피는 해외 여행객 선물용으로 유명하다.

어디서 사는 것이 좋나

전통 시장이나 장인 마을을 직접 방문하면 좋다. 오악사카 주변 목공 마을, 탁스코 은세공 공방 등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면 품질 확인이 쉽고 가격도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살 때는 반드시 "Hecho en Mexico" 표기 확인해야 한다. 가끔씩 중국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도 피하는게 좋다. 젊은 여행객들은 단순한 물건보다 이야기가 있는 제품을 찾는다.

멕시코 기념품의 매력은 화려함보다 정제성에 있기 때문이다.

가짜 성당에 속아 종교혼인 사기 16년 결혼이 '무효'파문

멕시코 과나후아토(Guanajuato) 주 레온에서 16년째 혼인생활을 이어온 한 부부가 자신들의 교회 결혼이 가톨릭교회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파티마 델 카르멘 에르난데스 팔콘은 16년 전 레온(Leon) 북서부 알파로(Alfaro) 지역의 이른바 '세뇨르 데 로스 밀라그로스(Señor de los Milagros)'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해당 시설이 교회법상 인가받지 않은 장소였고 집전 성직자 역시 정식 권한이 없는 인물들이어서 혼인성사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연을 넘어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세례·첫영성체(Primera Comunión)·견진(Confirmación)·혼인(Matrimonio religioso) 등 각종 성사를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집전해 온 이른바 ‘가짜 본당’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MILENIO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예비교육이나 정식 교리과정 없이 지정된 날짜에 오기만 하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운영됐고, 주민들 증언으로는 결혼식이나 첫영성체 등이 약 300페소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가 된 장소는 레온 알파로 지역 카피야 데 알파로 222번지 일대에 있는 ‘세뇨르 데 로스 밀라그로스’로 불리는 시설이다.

이곳은 외형상 작은 성당처럼 보이지만, 인근의 정식 가톨릭 본당과 달리 교구와의 일치(communion) 상태에 있지 않으며, 이곳에서 집전된 성사는 “유효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교회 측 판단이다.

이라푸아토 교구는 2026년 회람 07/2026을 통해 이를 “신자들에게



대한 진정한 기만”이라고 규정했고, 엔리케 디아스 디아스 주교 명의의 경고문을 본당 미사 중 직접 낭독하도록 지시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교회 당국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련 경고는 최소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2019년에도 같은 취지의 주의가 다시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ACI Prensa와 현지 매체들은 주민 증언을 인용해, 오래전부터 ‘하비에르 신부’로 불린 인물이 이곳을 사실상 운영해 왔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가짜 신부”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고 전했다.

파티마 사례가 특히 충격을 준 이유는,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부부로 살아왔음에도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는 점 때문이다.

같은 문제를 겪은 주민 후아나 에르난데스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첫영성체를 했지만, 나중에 교회 결혼을 하려 하자 그 성사가 인정되지 않아 22일 동안 다시 준비 과정을 거쳐 첫영성체를 새로 받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가 혼인에만 그치지 않고 세례·견진 등 다른 성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톨릭교회법상 왜 이런 혼인이 무효가 되는지도 비교적 명확하다.

바티칸 교회법 제1108조는, 가

톨릭 신자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지역 직권자, 본당신부 또는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부제가 임회하고, 두 명의 증인 앞에서 거행되어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외형상 결혼식이 치러졌더라도 정식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 혼인합의를 받아냈다면 성사로서의 혼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바티칸은 또 혼인이 형식 결합으로 무효였던 경우, 이를 유효하게 하려면 정식 교회 형식에 따라 새로 혼인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부분 카톨릭 신자인 멕시코인들은 성당에서의 결혼식을 매우 의미있는 행사로 받아들인다. 법적요건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외형적인 조건을 갖췄다면 성당에서의 결혼은 내면을 채우는 결혼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세례와 견진도 마찬가지다. 세례의 통상적 집전자는 주교·사제·부제이며, 견진의 통상적 집전자는 주교이고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제만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의식을 흥내 내거나, 교회가 정한 방식과 본질적 요소를 벗어난다면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2024년 바티칸 교리부도 성사의 유효성에 관한 문서에서, 성사의 ‘질료와 형상’, 곧 핵심 행위와 정식 문구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성사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멕시코에서 교회 결혼 인정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도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법적으로만 보면 멕시코에서 혼인의 국가적 효력은 어디까지나 민사혼, 즉 시민등록소(Registro Civil)를 통한 혼인에 의해 발생한다.

연방 민법은 혼인을 법이 정한 공무원 앞에서 법정 형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분관계의 증명 역시 시민등록소의 기록으로만 이뤄진다고 명시한다. 즉 교회 결혼만으로는 상속, 사회보장, 재산분할, 공식 배우자 지위 같은 국가법상 권리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회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멕시코 사회에서 가톨릭이 여전히 가장 큰 종교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NEG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멕시코의 가톨릭 신자는 약 9,786만 명으로, 전체의 78% 수준이다.

또 혼인 자체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어, INEGI의 2023년 혼인통계에서는 한 해 50만1,529건의 혼인이 등록됐다.

법적 효력은 민사혼에 있지만, 많은 가정은 교회 결혼을 “하느님 앞의 진짜 결혼”, 공동체가 공인하는 결합, 자녀 신앙교육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세례, 첫영성체, 견진, 교회장례 등 이후의 종교생활이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 혼인이 무효라는 사실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정체성과 종교적 소속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싸고 빠른 성사”에 대한 수요다.

정식 가톨릭 본당에서 혼인이나 세례를 받으려면 예비교리, 서류확인, 경우에 따라 세례·견진·첫영성체의 선행 여부 확인까지 필요하다. 바티칸 교회법도 혼인에 필요한 조사와 공고, 장애사유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외식 창업 붐으로 멕시코시티 도심 상권 재편 본격화

멕시코시티 주요 도심 상권에서 외식 창업 붐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Mexico City Zona Rosa, Colonia Juárez, Roma Norte, Condesa 등 중심 지역에서는 신규 식당·카페·바·브런치 업장이 잇따라 문을 열며 도시 상권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상업지구가 다시 살아나면서, 외식업이 멕시코시티 도심 재생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업 붐의 가장 큰 배경은 관광 회복과 외국인 유입 증가다. 멕시코시티는 최근 북미·유럽 관광객뿐 아니라 장기 체류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 근무층이 급증하면서 국제 소비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통 음식점보다 감각적인 브런치 카페, 퓨전 레스토랑, 칵테일 바, 프리미엄 타코 전문점 등에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미식 매체들은 멕시코시티를 세계 주요 외식 도시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규 콘셉트 식당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Mexico City는 최근 수년간 세계적 미식 도시 순위에서 존재감을 높여 왔다. 한때 전통적 유흥가 이미지가 강했던 Mexico City Zona Rosa는 최근 재개발과 상권 재편



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노후화와 치안 문제로 경쟁력이 약화됐지만, 현재는 레스토랑·호텔·카페·클럽·쇼핑이 결합된 복합 상권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나로사에는 이미 700개 이상의 사업체와 130개 이상의 식당이 밀집해 있으며, 하루 유동 인구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일본·미국·남미계 음식점들이 혼재하면서 국제 상권 성격이 강해졌고, 최근에는 감성 인테리어 카페와 루프탑 바까지 늘어나고 있다. 후아레스·로마·콘데사는 ‘창업 1순위’

외식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Mexico City Colonia Juárez와 Roma Norte, Condesa다. 이 지역들은 도보 소비 문화 발달, 외국인 거주 비율 높음, SNS 노출 효과와 강한 배달

수요, 야간 상권 활성화 등의 이유로 창업자 선호도가 높다. 특히 로마·콘데사는 개성 있는 소규모 레스토랑과 셰프 중심 식당, 스페셜티 커피숍이 집중되며 멕시코시티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임대료 급등...창업 붐의 그림자 문제는 임대료다. 도심 인기 상권의 점포 임대료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외국 자본 유입과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업용 부동산까지 번지면서, 신규 창업 비용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권 1층 소형 점포는 월 임대료가 수만 페소에서 시작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은 그 이상도 흔하다. 여기에 보증금, 인테리어, 허가 비용, 주방 설비, 인건비까지 더해지면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창

업자들은 대형 매장보다 공유주방 활용, 테이크아웃 전문점, 팝업 스토어, 소형 바(Barra) 형태, 배달 중심 브랜드 등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시티 외식 창업 붐의 이유를 4가지로 분석한다.

관광 회복과 외국인 소비 증가, 젊은층의 외식·경험 소비 확대, 배달 플랫폼 성장, 비교적 빠른 현금 회전 구조다. 특히 제조업이나 일반 소매업보다 초기 자본 회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외식업이 창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최근 1~2년 사이 수많은 신규 업장이 생기면서, 단순히 음식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브랜드 스토리, 인테리어, SNS 마케팅, 배달 운영, 서비스 품질까지 갖춰야 살아남는 구조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지금 멕시코시티 외식업은 기회가 많지만, 동시에 실패도 빠른 시장”이라며 “좋은 입지와 차별화 콘셉트 없이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의 외식 창업 붐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시 구조 변화와 연결돼 있다. 주거와 관광, 상업, 국제 인구 이동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는 새로운 소비 중심지로 재편되고 있다.

8면에 이어.

그런데 가짜 성당은 바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복잡한 준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적 사기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교회 측은 피해 신자들에게 정식 본당을 통해 자신의 성사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교구 지침에 따라 세례·첫영성체·견진·혼인 여부를 다시 정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혼인의 경우 교회법상 “형식 결합”으로 무효였다면,



정식 권한을 가진 사제·부제와 증인 앞에서 다시 혼인합의를 해야 유효해진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단순한 행정 정정이 아니라, 사실상 인생의 중요한 중

교 의식을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이 닥친 셈이다. 이번 레온 사건은 멕시코 사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왜 수십 년 동안 이런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종교적 권위와 공동체 신뢰가 여전히 강한 사회에서 “가짜 성사”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게 훼손할 수 있느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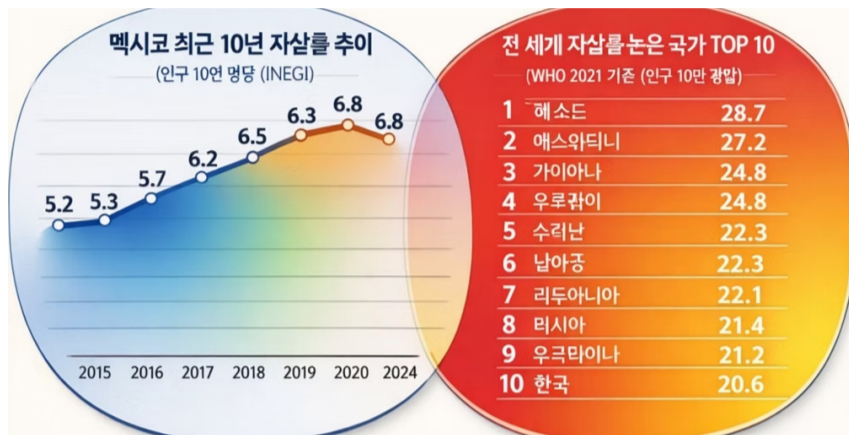
파티마 부부에게는 16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16년이 처음부터 성사혼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이 남았다. 그리고 그 충격은 지금도 레온 주변의 다른 피해 가정들로 번지고 있다.

멕시코 정신건강 위기 부상...2024년 자살 약 9천 건

멕시코의 정신건강 위기가 더 이상 주변 의제가 아니라 국가적 보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통계청 INEGI의 2025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멕시코에서는 8,856건의 자살이 발생했고, 인구 10만 명당 6.8명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23년의 8,837건과 같은 수준이지만, 201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뚜렷한 상승 흐름 위에 놓여 있다. INEGI는 2024년 수치가 2014년과 2019년보다 높다고 명시했고, 자살은 이미 멕시코의 구조적 공중보건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사망 통계만이 아니다. 멕시코 보건당국 산하 CONASAMA 자료는 2020년 7,818건이던 자살 사망이 2021년 8,351건, 2022년 8,123건, 2023년 8,837건으로 유지·증가해 왔다고 정리한다. 같은 자료는 2024년 1~9월에만 전국 보건서비스에서 자살 사고(ideaci)n suicida) 332건, 자살 시도(intento suicida) 329건의 진료 수요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의료 체계에 포착된 사례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제 위기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성별 격차도 분명하다.



2024년 멕시코의 자살률은 여성 10만 명당 2.6명, 남성 10만 명당 11.2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CONASAMA는 ENSANUT 2022를 근거로 자살 사고와 시도는 여성에서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멕시코의 자살 위기는 “고통의 표현”과 “치명적 결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압박이 집중되는 구간이 특히 취약하다. INEGI에 따르면 2024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44세 (10.7)였고, 그다음은 15~29세 (10.2)였다. 이는 흔히 “청소년 문제”로만 축소되던 자살 이슈가 사실은 청년층과 중년 초반까지 넓게 확산된 생활·노동·가계·정서 위기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

준다. 정신건강 전반의 수요 역시 이미 급증해 있다.

멕시코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보건체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장애 52.8%, 우울 25.1%였다. 또 IMSS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20만3천 명의 우울 관련 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74%가 여성, 10.8%는 20세 미만이었다.

별도로 ENSANUT 2022 분석에서는 성인 전체의 16.7%가 우울 증상을 보였고, 노년층에서는 이 비율이 38.3%까지 올라갔다. 자살 수치의 상승은 이처럼 훨씬 넓은 정신건강 취약성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멕시코 정부와 국제기구도 이를 더는 단일 병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PAHO/OPS는 미주

지역이 WHO 권역 중 자살률이 오히려 상승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2024년 멕시코 정부와의 협력 발표에서도 1차의료 강화, 지역사회 기반 모델, 낙인 완화, 자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IMSS도 2026년 기준으로 전화상담, 조기 선별, 1차 진료 연계 같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런 정책적 대응은 이제 시작 단계에 가깝고, 증가한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멕시코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세계 최상위권의 자살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승 속도와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WHO 기반 2021년 국제 비교에서 멕시코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7.0명으로 세계 최상위 10개국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국내 최신 INEGI 기준 2024년 조자살률은 6.8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우울·불안·자살 사고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멕시코의 문제는 “세계 1위의 충격적 수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퍼진 정신건강 악화가 이미 사망 통계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일품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멕시코 최고의 中食堂

짜장면...\$170 군만두....\$200
 짬뽕.....\$200 잡쌀탕수육....\$390

할인 세트메뉴

잡쌀탕수육+짜장면2 \$480
 판봉기+짜장면2 \$450

※ 월요일 정상영업 합니다

Praga 54, Col. Juárez, Cuauhtémoc, 06600, CDMX (Zona Rosa)
 주문전화: 55-5511-2848 / 55-5511-3939

멕시코 유일 정통 중화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RESTAURANTE COREANO

2인분 이상 주문시 소나로사 지역 배달해 드립니다

주문가능시간:
 11:30 am~8:30 pm
 www.haringak.com.mx

한국 교민도 알아야 할 멕시코 시민단체 전면 해부

정부보다 먼저 움직이고, 법원보다 오래 싸운다...인권·여성·이민·부패감시 핵심 단체 총정리

멕시코에서 시민단체는 단순한 봉사조직이 아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신 처리하고, 때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자 가족과 함께 수년간 진실을 추적하는 또 하나의 사회 권력이다.

실종 사건이 터지면 정부보다 먼저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움직이고,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NGO 쉽터가 먼저 피해자를 숨긴다. 부패 의혹이 나오면 언론보다 먼저 시민단체가 자료를 공개하고, 외국인이 체류 문제를 겪으면 정부기관보다 NGO가 먼저 법률 안내를 제공한다.

멕시코에는 공식 등록 기준 약 4만~5만 개의 시민단체(Organizaciones de la Sociedad Civil, OSC)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조직은 수십 곳 수준이며, 분야별로 사회적 존재감이 매우 크다.

본지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주요 시민단체 5곳의 설립 배경, 주요 성과, 실제 역할, 정치 성향, 연락처, 한국인 활용도를 종합 정리했다.

① 국가폭력과 싸우는 최전선 Centro Prodh

멕시코 인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다. 정식 명칭은 Centro de Derechos Humanos Miguel Agustín Pro Juárez A.C.이며, 1988년 예수회 계열 인권운동가들이 설립했다. 이름은 멕시코 가톨릭 순교자인 미겔 아구스틴 프로 신부에서 따왔다.

1980년대 후반 멕시코는 고문, 정치탄압,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했다. Centro Prodh는 국가권력에 맞서는 전문 법률 인권단체로 출범했다.

아요치나과 학생 43명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 및 국제사회 여론화, 군인·경찰 고



문 사건 다수 승소, 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국가책임 인정 판결 이끌어냄, 원주민 공동체 토지권 보호 소송 지원, 강제실종 피해자 국가보상 사례 다수 확보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눈에 보면 정부가 잘못했을 때 시민 편에서 싸우는 변호사 조직에 가깝다.

주소: Serapio Rendon 57-B, San Rafael, Ciudad de Mexico
연락처: (55) 5546-8217 / (55) 5566-7854

정치성향: 진보·인권 중심. 군의 치안개입 확대에 비판적.

한국인 활용도: 경찰 과잉 단속, 노동권 침해, 억울한 인권 문제 발생 시 참고 가능. 외국인과 난민의 마지막 상담창구

② Sin Fronteras IAP

멕시코의 대표 이민자·난민 지원 시민단체다. 1995년 설립됐다. 이름 뜻은 “국경 없는 세상”이다.

멕시코는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통로이자, 최근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한 나라다. Sin Fronteras는 이민자들이 겪는 법률·행정·차별 문제를 돕는다.

주요 성과로는 중남미 난민 수천 건 망명 신청 지원, 멕시코 이민청(INM) 구급센터 인권 실태 폭로, 여성·아동 이민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체류권 분쟁 법률 대응, 난민 취업·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한눈에 보면 외국인이 멕시코에

서 문제 생겼을 때 가장 현실적인 NGO다.

위치: Carlos Dolci 96, Col. Alfonso XIII, Alvaro Obregon, C.P. 01460, Ciudad de Mexico

연락처: Tel: 55 5514 1519, 추가 번호: 55 5514 1521 멕시코시티 중심권 활동기반

정치성향: 중도진보·실무형 인권단체

한국인 활용도: 매우 높음. 비자 지연, 체류 변경, 차별 문제, 노동 문제 등.

③ 여성폭력 피해자를 숨겨주는 네트워크 Red Nacional de Refugios

멕시코 전역 여성 쉽터 네트워크다. 가정폭력, 협박, 성폭력, 살해 위협을 받는 여성과 자녀들을 비밀 보호시설로 연결한다. 멕시코는 여성살해(Feminicidio)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 단체의 존재감은 매우 크다.

주요 성과로는 수천 명 여성·아동 긴급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체계 구축, 여성보호 예산 삭감 저지 운동, 전국 핫라인 및 긴급 연계망 운영, 고위험 피해자 해외 대피 지원 사례도 존재

한눈에 보면 위험한 상황의 여성을 실제로 숨겨주는 조직이다.

연락처: 전국 긴급전화: 800 822 4460, 멕시코시티 수도권: 55 5674 9695 / 55 5243 6432

주소: 보안상 개별 쉽터 주소는

공개하지 않고있다.

재정: 정부보조금 + 국제기금 + 민간기부

정치성향: 여성권리·진보

한국인 활용도: 가정폭력·스토킹·협박 상황 시 매우 중요.

④ 환불 못 받았을 때 가장 강한 기관 PROFECO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멕시코 시민 권익 보호의 핵심 기관이다. 정식 명칭은 Procuraduría Federal del Consumidor. 한국 교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 중 하나다.

주요 성과로는 대형 가구업체 환불 지연 사건 다수 시정, 항공권 초과 판매·취소 분쟁 중재, 통신사 부당요금 환급 사례 다수, 온라인 쇼핑 사기 경고 발표, 가격 담합·허위광고 조사 등이다.

한눈에 보면 멕시코판 소비자보호원 + 공정거래 민원창구다.

본부: Av. José Vasconcelos 208, Condesa, CDMX

연락처: 55 5568-8722

한국인 활용도: 최상급. 가구 배송 지연, 환불 거부, 계약 피해 등

⑤ 권력층 비리를 캐내는 민간 감시탐 Mexicanos Contra la Corrupcion y la Impunidad

2015년 설립된 반부패 전문 NGO다. 정치권·공공기관·정부계약 비리를 추적하며, 탐사보도 매체와 협업도 활발하다.

주요 성과로는 고위공직자 재산 은닉 의혹 폭로, 공공사업 입찰 특혜 구조 분석, 친인척 특혜 계약 의혹 공개, 반부패 제도개혁 입법 압박, 연방정부 예산 집행 감시 보고서 발표 등이다.

한눈에 보면 멕시코 권력층이 가장 싫어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다.

정치성향은 보수·반정부 성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소: Campos Eliseos 345, Col. Chapultepec Polanco, Miguel Hidalgo, C.P. 11560, Ciudad de México (Torre Omega)

연락처: 과거 공개번호: 55 5979 0308 (현재는 온라인 문의 중심 운영) (관련기사 12면)

"50분마다 송유관이 뚫렸다"...끝나지 않는 연료 절도 전쟁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PEMEX의 송유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평균 50분마다 한 번씩 불법 천공(도관 절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PEMEX 송유관에서 적발된 불법 연결 지점(tomas clandestinas)은 총 10,591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약 49.6분마다 1건씩 발생한 셈이다.

이는 전년 11,774건보다 약 10% 감소한 수치지만, 멕시코 정부가 수년째 “후아치콜(huachicol·연료 절도)” 척결을 선언해 온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아치콜’은 무엇인가
멕시코에서 huachicol은 원래 가짜 술을 뜻했지만, 현재는 연료 절도 범죄 전체를 의미한다.

범죄조직은 PEMEX 송유관 위치를 파악한 뒤 야간에 도관을 뚫고 밸브와 호스를 설치해 휘발유·디젤·LP가스를 빼낸다. 이후 탱크로리 차량이나 비밀 저장소로 옮겨 암시장에 유통한다. 이 범죄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조직범죄 자금원, 지방 공무원 부패, 폭발·화재 위험, 세수 손실, 정유 공급망 혼란과 직결되는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된다. 특히 Hidalgo는 멕시코 최대 연료 절도 거점으로 남아 있으며, 수도권 인접성과 물류 접근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LP가스 도난은 오히려 급증



휘발유·디젤뿐 아니라 LP가스 도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구기관 IGAVIM에 따르면 PEMEX 가스 인프라에서 발생한 불법 연결은 2024년 953건, 2025년 1,161건으로 21.8% 증가했다. 약 7시간 33분마다 한 번꼴로 가스관이 뚫린 셈이다.

PEMEX는 어떻게 감지하나?

연료 절도범들이 밤에 몰래 도관을 뚫는데도 PEMEX가 어떻게 이를 알아내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실제로는 다음처럼 여러 기술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1. 압력 센서
송유관 내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누군가 도관을 뚫으면 압력이 갑자기 떨어진다.

PEMEX 중앙 관제실은 특정 구간 압력 강하가 나타나면 즉시 경보를 받는다.(정상 압력 800 psi → 갑자기 690 psi → 누출 또는 도난 의심)

2. 유량 비교 시스템
한 지점에서 보낸 연료량과 다음

지점에서 도착한 양을 비교한다. A지점 송출 100,000리터-B지점 도착 96,500리터, 중간에서 3,500리터 손실 발생 → 도난 가능성 제기. 이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감지 시스템이다.

3. SCADA 원격 관제망
대형 파이프라인은 보통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으로 통제된다. PEMEX 역시 압력, 온도, 밸브 개폐, 펌프 상태, 유량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군·경찰·기술팀에 통보된다.

4. 드론·헬기·지상 순찰
특히 위험 지역에서는 군용 드론, 헬리콥터 열감지 카메라, 육군 차량 순찰, 현장 탐지견 등이 투입된다. 멕시코 군은 실제로 송유관 인근 농지와 외곽지대를 순찰하며 불법 탱크로리 이동도 감시한다.

5. 위성·열화상 감시 (신규 기술)
최근에는 야간 열영상, 지표 진동 감지, 위성 영상 변화 탐지, AI 패

턴 분석 등 차세대 기술도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특정 농지에 대형 차량이 반복 진입하면 의심 신호가 발생

왜 막기 어려운가
멕시코 전역의 송유관망은 매우 방대해 수천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여기에 부패한 회사 내부 직원의 공모로 관로 지도, 압력 정보, 순찰 시간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료 절도가 생계형 범죄로 뿌리내리면서 송유관이 통과하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특히, Cartel Jalisco Nueva Generación(신세대 카르텔)과 Cartel de Sinaloa 등 주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범죄 자금원으로 지목돼 왔다.

PEMEX 손실은 얼마나 큰가
정확한 연간 손실액은 해마다 다르지만, 연료 자체 손실, 설비 수리비, 화재·폭발 피해, 공급 차질, 세금 손실까지 합치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후아치콜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50분마다 송유관이 뚫리는 나라다. PEMEX는 센서, 관제망, 군 순찰, AI 기술까지 총동원하고 있으나, 범죄조직은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단순 절도 단속이 아니라 국영기업 생존과 국가 재정,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전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 | | | |
|---|--|--|--|
| <p>11면에 이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시민후원기반으로 이미 지 개선을 노리는 기업체 후원도 큰 몫을 차지한다. 미국,EU 재단, 국제기구에서 일부 후원도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일부 단체만 해당한다. 대표 후원처로 Ford</p> | <p>Foundation, Open Society Foundations, 유럽계 민주주의 기금 등이 알려져 있다. 왜 시민단체가 강한가 멕시코는 제도는 크지만 집행력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 신뢰도, 사법 속도, 지역정부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 많</p> | <p>다. 그 빈 공간을 시민단체가 채웠다. 실종자를 찾는 것도 가족 단체, 여성 보호도 NGO, 부패 감시도 민간조직, 소비자 보호도 별도 기관이 중심이 되는 구조다. 멕시코 시민단체는 “좋은 일하는 자원봉사 조직” 수준이 아니다.법률전, 여론전, 국제전,</p> | <p>구조활동까지 수행하는 실천형 사회세력이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도 이들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문제 발생 시 가장 현실적인 해결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계약 피해, 비자 문제, 여성 안전, 인권 침해 분야에서는 시민단체를 아는 것 자체가 안전망이 된다.</p> |
|---|--|--|--|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숯불 '장어구이' 개시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2026.04.08 ~ 04.27



Ⓢ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 실시한 제 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

신고·등록신청 방법



· 인터넷

ova.nec.go.kr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공관방문 / 순회접수 시 서면 신청

· 우편 / 전자우편(e-mail) 해당 공관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확인하세요